

## '나는 솔로' 25기 영철♥미경, 초고속 스킨십...손 잡았다

등록 2025.04.02 00:00:00



[서울=뉴시스] SBS Plus-ENA 예능물 '나는 솔로(SOLO)'가 2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. (사진=SBS Plus-ENA 예능물 '나는 솔로(SOLO)' 제공) 2025.04.01. photo@newsis.com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한별 인턴 기자 = '나는 솔로(SOLO)' 25기 영철과 미경이 핑크빛 분위기에 휩싸인다.

2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SBS Plus-ENA 예능물 '나는 솔로'에서 '랜덤 데이트'를 통해 초고속으로 가까워지는 영철과 미경의 모습이 그려진다.

이날 방송에서 영철과 미경은 '랜덤 데이트' 시작부터 자연스럽게 손깎지를 끼며 연인 같은 무드를 발산한다.

미경은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영철에게 "너도 되게 끌리는 느낌은 있다"고 말했다. 그러면서 "근데 나랑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"고 알쏭달쏭하게 말한다.

이에 영철은 "직진이면 부담?"이라고 묻고, 미경은 "상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, 호감 가져주면 고맙고 멋있지"라고 답한다.

영철은 "그럼 직진할게"라고 저돌적으로 선언한다.

잠시 후, 미경은 자신의 마음 속 순위를 묻는 영철에게 "어제까진 없었다,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"고 고백하며 '첫인상 남'이었던 영철을 마음속에서 지웠던 과정을 솔직하게 밝힌다.

이를 들은 영철은 "하지 마. 배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"라고 다급히 만류한다.

미묘한 기류 속,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진다. 급기야 둘은 데이트 내내 손을 잡고 있던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초밀착 스킨십을 감행한다.

데이트 후에도 영철은 "(숙소에) 들어가서 손 못 잡네"라고 아쉬워한다. 미경 역시 "약간 바람피우는 느낌"이라며 웃는다.

또한 미경은 "자기야. 달 좀 봐"라고 애교 넘치는 멘트를 날린다. 랜덤 데이트 후 달라진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주목된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[astar@newsis.com](mailto:astar@newsis.com)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